

'20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

제1호 안건 (심의)

제1차 일학습병행 추진계획('21~'23)

2020. 11. 17.

순 서

I. 추진배경	1
II. 일학습병행 사업의 현주소 · 전망	2
III. 추진과제	6
1. 학습기업 참여 활성화 및 지원강화	7
2. 학습근로자 경력개발 및 미래인재 성장 기회 부여	10
3. 일학습병행 활성화 기반 구축	13
4. 일학습병행 자격 통용성 확대 지원	16
IV. 기대효과	17
V. 추진일정	18

I. 추진배경

-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결 및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입직 지원을 위해 지난 '14년부터 일학습병행 사업 추진

['일학습병행'이란]

-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담당 직무를 수행토록 하면서 도제식 현장훈련(OJT)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(Off-JT)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 부여
- 독일·스위스 등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일터 기반 학습(Work based Learning)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설계

- 현재까지 총 1만 6천개 학습기업, 10만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한 한국형 도제제도로 국제사회에서도 성과를 인정

* OECD도 「대한민국 정부혁신 10대 사례」로 일학습병행을 선정('19.8월)

- 양적인 성장과 함께, 지난 8.28 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되어 일학습병행의 안정적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

- 한편,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디지털화와 비대면(untact) 생활 방식의 확산 등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초래 중

- 직업훈련 분야에서도 재택근무, 온라인 원격훈련이 증가하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 「미래형 핵심 실무 인력양성(K-Digital Training)」 등에 대한 필요성 증대

-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재학생 분야 일학습병행 사업의 새로운 방향 모색 및 사업내실화 요구

❖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, 고용위기 등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훈련 분야에 있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

*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혁신을 기반으로 '개방·유연·공유'를 적극 추진

⇒ 「일학습병행 추진계획('21~'23)」을 통한 일학습병행 사업의 '질적 내실화' 및 효율적 운영 추진

II. 일학습병행 사업의 현주소·전망

- ❖ **학습기업** : ▲1만 6천개 ▲300인 미만 96% ▲제조업 57%
- ❖ **학습근로자** : ▲10만명 ▲청년층 84% ▲고졸·전문대 69%
- ❖ **훈련과정** : ▲제조(기계, 전기·전자, 재료, 화학) 52%, 서비스 14%
- * '14년 이후 누적 ▲훈련수준 NCS level 2~3 74% ▲OJT 편성비율 63%

1 일학습병행 사업의 현주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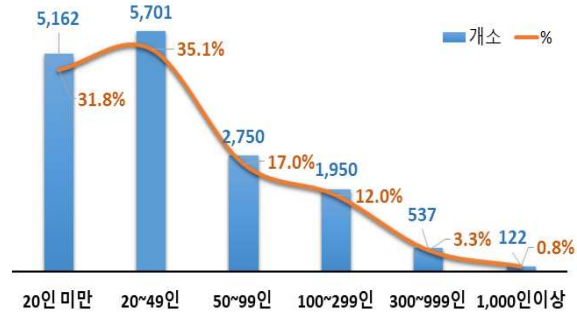
(1) 학습기업 현황

- (총괄) '14년 도입 이후 **1만 6천개** 기업이 참여('19년 연간 7,512개소), 현장 맞춤형 훈련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
 - * OJT/Off-JT 훈련비·훈련장려금 등을 지원, 학습기업의 부담 완화
- (규모별) **300인 미만** 기업이 **95.9%**(1만 5천개소)로,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

[학습기업 현황]



[규모별 현황 (누적)]



- (업종별) 제조업이 **56.8%**, 출판·방송통신·정보서비스업이 **10.4%**로 뿌리산업 등 제조업 현장에 맞는 실무형 인재양성 시스템으로 작동

- ❖ 우리 경제·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의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
- ⇒ 신산업·신기술과의 연계·융합을 통해 기업이 선호하는 산업 현장 실무인재 양성체제로 자리 매김 추진

[2] 학습근로자 참여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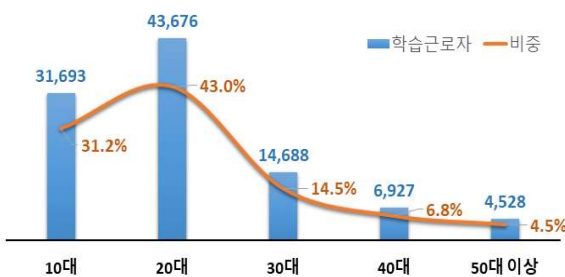
- (총괄) '14년 도입 이후 10만명이 참여, 초기 입직 근로자의 직장 적응을 돕고, 지속적 능력개발기반을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
- 특히, '15년부터 특성화고 도제학생 등 재학생들이 근로자로 두텁게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인 훈련을 실시(누적 2만 6천명)
- * 재학 중 기간제 근로자 채용, 법정 근로조건 적용, 4대보험 가입 등 보호 가능. 특히, 「일학습병행법」 시행으로 외부평가 합격시 계속고용, 야간·휴일 OJT 금지 등 보호 강화

[참여자에 따른 사업유형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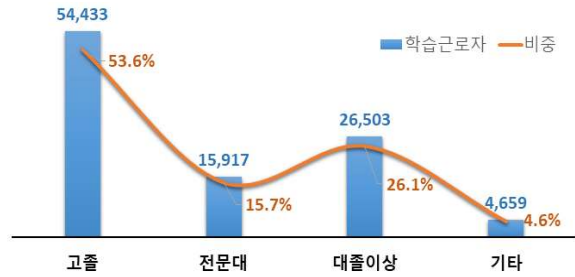
- △ 재직자 단계 : 재직 1년 이내 소속 근로자에 실시, Off-JT 실시주체에 따라 단독기업형(기업 자체)과 공동훈련센터형(훈련기관 위탁)으로 구분
- △ 재학생 단계 : 특성화고(도제학생), 전문대, 4년제 재학생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후 실시, 학교 수업이 Off-JT에 해당

- (연령·학력별) 34세 이하 청년층이 83.4%, 고졸·전문대졸이 69.3% 참여, 고졸 등 청년들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지원
- * '19년 도제학교 취업률(2월 기준) : 70.2%

[연령별 현황 (누적)]



[학력별 현황 (누적)]



- (자격취득) '20.8월 법 제정으로 훈련종료 후 일학습병행 자격(국가자격) 부여 가능, 자격 과정 수료자 5.6만명 중 28.7%가 취득
- * 학습근로자는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여 경력 관리, 취업 등에 유리

❖ 고졸·청년층이 노동법의 보호 아래 훈련하고, 조기취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훈련수료 후 국가자격 취득 지원

⇒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 등을 통해 자격의 효용성을 높이고 학습근로자가 기업에 장기근속하며 성장할 수 있는 후학습 지원

[3] 훈련과정 현황

- (직종별) 기계, 전기·전자, 재료, 화학 등 전통 제조 관련 직종에서 절반 이상(52.3%)의 훈련 실시
- (NCS수준·자격) NCS Level2~3의 기능사·산업기사 수준의 과정이 대부분(74%) 신규 채용한 청년의 양성과정으로 활용
 - * 수준비교 : ▲L2 → 기능사 ▲L3~L4 → 산업기사 ▲L5 → 기사
-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이 가능한 훈련 과정(96.9%)이 대부분
- (훈련방식) 훈련과정당 평균적으로 OJT 63.1%, Off-JT 36.9%를 편성, 참여기업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훈련 실시

[4] 사업추진 인프라 현황

- (공동훈련센터) 학습기업 상당수(74%)가 Off-JT를 외부 훈련기관인 공동훈련센터에서 실시, OJT를 보완하는 전문적인 이론·실무 교육 제공
 - * 공동훈련센터형 재직자 단계 + 재학생 단계 → 총 226개소(중복 제외시 191개소)

[일학습병행 사업 유형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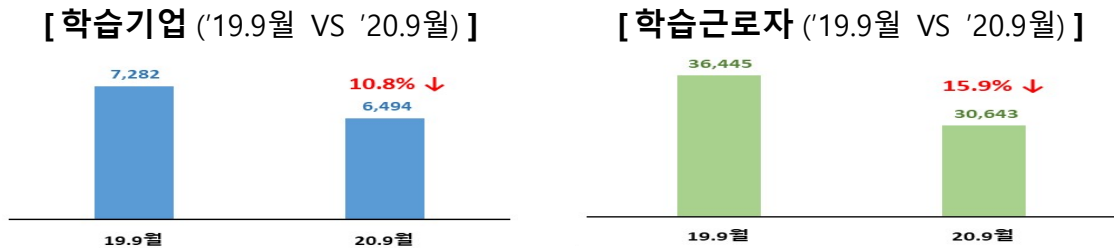
구분	대상 및 유형	주요 내용
재직자 단계	단독기업형	개별 기업에서 현장훈련(OJT)과 현장외훈련(Off-JT) 실시
	공동훈련센터형	외부 전문훈련기관의 현장외훈련(Off-JT)+기업의 현장훈련(OJT)
재학생 단계	고교 단계 (특성화고 2~3학년)	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+도제훈련을 통한 현장성 제고
	고교-전문대 단계 (고교+전문대 통합교육)	Uni-Tech 4년간(고교2년+전문대2년) 통합 훈련을 통한 조기입직 유도
	전문대학 단계 (전문대 2학년)	전문대단계 일학습병행 전문대 재학생(졸업반)을 대상으로 조기취업 유도
	대학교 단계 (4년제대 3~4학년)	IPP형 3~4학년이 학기제 방식으로 장기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 참여
後학습	P-TECH	도제학교 졸업생에게 신기술 중심의 고숙련훈련·학위취득 지원

* 공동훈련센터에서 Off-JT 실시(재학생 단계는 학교가 공동훈련센터에 해당)

- (기업현장교사) 기업자체 훈련과정 개발, 도제식 OJT 실시 및 훈련관리, 내부평가 등 실무형 핵심인재 양성에 중추적 역할
 - * ▲ 학습기업 1개소당 기업현장교사 3.6명 ▲ 기업현장교사 1인당 학습근로자 1.7명

2. 훈련시장 여건 및 전망

- (코로나19 장기화) 비대면 확산, 디지털 기술 활용 증대 및 고용위기 등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초래, 직업훈련 분야도 패러다임 전환 필요
 - 집체훈련 중심의 직업훈련이 중단·축소되는 등 훈련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, 비대면 온라인 훈련 방식의 수요 증가



- (4차 산업혁명·디지털 뉴딜) 고용형태 및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, 핵심직무역량의 변화, 직장이동 증가 등 노동시장 변동성 확대
 - 신산업·신기술 분야 훈련수요 확대에 따라 일학습병행 사업도 기초 제조업과 함께 신기술·신산업 분야로의 확대 필요성 증대

📁 한국형 뉴딜 VIP 말씀 ('20.7.14)

-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. 디지털 역량을 초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음
-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 일자리의 寶庫. 사람 투자를 확대, 변화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과 직업훈련 체계 강화

- (학령인구 감소) 도제학생 등 청년층의 감소*에 따라 일학습병행 참여자의 양적 감소는 지속될 전망

* 연도별 도제 참여학교 및 신규 참여 학생수 : ('16) 62개교, 2,251명 → ('17) 157개교, 5,613명 → ('18) 163개교, 4,560명 → ('19) 163개교, 3,948명 → ('20) 151개교, 3,566명

- 일자리 경험은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, 더 빨리·더 좋은 일자리 진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지속 추진

* 재학 중 일경험 유무에 따른 고용률('20년,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부가조사) :
 ▲ 일자리 경험 있음 70.3% VS 일자리 경험 없음 59.7%

❖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 일학습병행 사업에 있어서도 훈련분야·훈련방식 변화 등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상황

III. 추진과제

비전

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직업훈련체계 마련

목표

- 일학습병행훈련을 통한 “실무형 핵심인재 양성”
- 중소기업 중심의 현장인력 양성을 통한 “기업 경쟁력” 제고

**중점
추진
과제**

**I. 학습기업
참여 활성화
및 지원강화**

- ① 우수 중소·중견기업 참여 확대
- ② 훈련관리 체계개편을 통한 기업참여 유인제고
- ③ 기업수요 중심의 훈련모델 개발
- ④ 학습기업 지원강화

**II. 학습근로자
경력개발 및
미래인재
성장 기회
부여**

- ① 학습근로자와 학습기업간 매칭 강화
- ② 후학습 성장경로 구축
- ③ 신산업·신기술 분야의 미래인재 성장 지원
- ④ 학습근로자 참여 동기부여 및 직장적응 지원

**III. 일학습병행
활성화 기반
구축**

- ① 기업현장교사 역량강화
- ② 공동훈련센터 등 지원기관 효율화
- ③ 비대면 원격훈련 기반 구축
- ④ 성과관리 지표 구축

**IV. 일학습병행
자격 통용성
확대 지원**

- ① 일학습병행 자격의 산업현장 통용성 확보
- ② 신기술 분야 자격 발굴
- ③ 평가체계 개편을 통한 자격 공신력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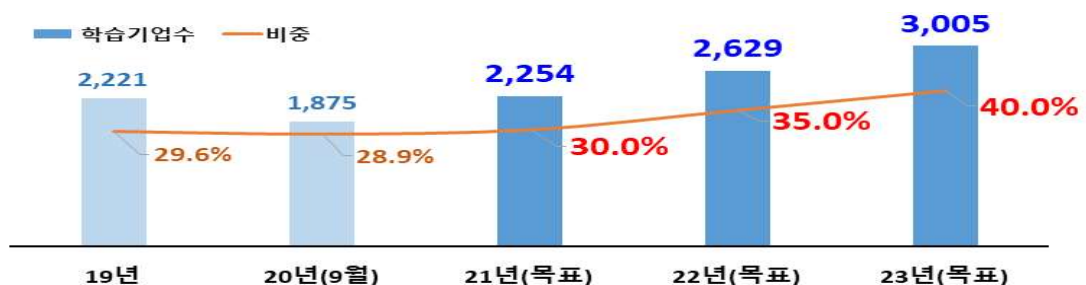
I 학습기업 참여 활성화 및 지원강화

- ❖ 우수 중소·중견기업 참여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·규모의 기업이 참여하도록 훈련관리 체계개편, 기업 수요 기반의 훈련모델 지속 개발

1 우수 중소·중견기업 참여 확대

- (우수기업 발굴) 양질의 일자리와 훈련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우량 기업 발굴이 핵심과제, 기업 및 학습근로자의 참여 활성화 촉진
 - (타겟 기업) 경쟁력을 갖춘 강소·중견기업, 신산업 기술보유 기업, 양질의 훈련제공이 가능한 숙련기업 등
 - * 주요 타겟그룹(예시) : 월드클래스300·450, 우수기업연구소(ATC), 청년친화강소기업, 대한민국명장 관련 기업, 이달의 기능한국인기업, Best-HRD 기업 등
 - (타부처 정보연계) 고졸취업 우수기업 DB(교육부, 구축중),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(중기부) 등 관계부처와 협조, 기업 발굴
- 연도별 참여기업 중 50인 이상 우수기업 비중을 현재 30% 수준에서 '23년 40% 수준으로 상향 목표

[연도별 참여기업 중 우수 중견기업 현황 및 목표]



- (우수기업 인증제) 훈련성과가 높은 우수 학습기업 인증제를 도입, 우수학습기업 모델 확산(가칭 : Best-일학습병행 기업, 매년 50개소·'23년 150개소)
 - * 인증혜택(안) : ▲ 공공입찰 가점(조달청), 정책자금(중기부),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시 우대(중기부) 등 ▲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 지원시 보증료율 감면(0.1~0.2%), 은행 대출금리우대 및 수수료 감면 등

2. 훈련관리 체계개편을 통한 기업참여 유인제고

❖ 훈련 개시·실시·평가 등 소과정에서 기업 중심의 절차 간소화 및 성과중심 OJT로의 전환과 함께, 부실훈련 사전 예방활동 지속 추진

* 그간 유사서류 통합, 전산확인 대체, 불필요 서류 폐지 등의 방법으로 42개의 제출서류를 28개로 감축(33.3%↓)하는 등 행정간소화 진행 중('20)

□ (훈련개시) 기업별 훈련직무에 따른 표준화된 훈련과목 자동추천 (PDMS* 고도화) 등 훈련과정과 관련된 기업부담 완화

* 훈련과정 개발인정 시스템 : Program Development document Management System

□ (훈련실시) 기업현장 수요 및 직무특성에 맞는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

① (과정관리) 훈련일지·학습활동서 작성·제출, 훈련시간·장소 등 계획 변경 사전승인 사항 등 기업애로요인 사전 파악 및 탄력적 운영

* 장기(1년 이상) 훈련을 실시하는 일학습병행 특성상 서류 제출 의무, 사전 승인이 많아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이 주요 미참여 요인중 하나

② (OJT장소) 훈련직무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장 밖의 실제 근무장소에서도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OJT 장소 제한 완화

* (현재) 생산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로 OJT 장소 제한 → (개선) 전기공사 등 직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밖의 OJT 실시 허용

□ (내부·외부평가) 훈련직무별 평가문제 표준화하고, 자동출제가 가능한 문제은행을 구축, 평가 업무 효율화 및 절차 간소화

□ (성과중심 OJT) 내부평가 방식을 現 지필 위주 방식에서 기업 고유의 문제해결 또는 프로젝트 완성방식(PBL)으로 전환, 과정관리는 최소화

* ('20) 단독기업형 3개 기업, P-TECH 참여기업 전체(949개소)에서 도입·운영 중 → ('23) 고속런 마이스터 과정, 재직자 단계에 확대 적용

□ (부정훈련예방)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OJT의 특성상 심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부정훈련 예방활동도 지속

3 기업수요 중심의 훈련모델 개발

- (민간자율형 고도화) 기업이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개발하되, 지원 수준은 낮은 '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*' 형태 확산(저규제·저지원)
 - * (한독상의) 독일 자동차 회사의 한국딜러사에서 자동차 정비 분야의 훈련 실시
 - (대한상의) 조선해양, 자동차, 의료·바이오, 치과기공, 소프트웨어 등 5개 클러스터에서 훈련
- (지역 산업 연계모델 신설) 자치단체·지역산단 등 기업·공공훈련 기관 등과 연계, '기업 특화 일학습병행 패키지' 운영
 - * (예시) 스마트산단 확대 구축,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 사업, 지역 바이오헬스 인력양성 관련
- 재직기간 요건(1년 이내) 완화, 기업형 과정(NCS 활용률) 개편 인정, 훈련시간 및 기간 자율편성 등 패키지 형태 검토
- (대·중소 상생모델) 우수기업이 소속 근로자(단독기업형) 및 협력업체 근로자(공동훈련센터형)를 훈련시키는 "우수기업 주도 상생모델(가칭)" 신설

4 학습기업 지원강화

- (학습기업 혜택확대) 대기업이 재학생을 채용하여 일학습병행 참여시, 현재의 대기업 지원금 차등지급 폐지(재직자단계 참여시 차등지급 유지)
 - * 1,000인 이상 기업의 재학생단계 참여시 ①훈련비 감액(-30%) 폐지 ②훈련장려금(훈련기간 중 월 20만원 + 외부평가 합격시 월 20만원) 미지급 폐지
- (기업환경 개선지원) 「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」, 「산재예방시설 용자 사업」 최우선 선정 방안 및 훈련과정 개발단계부터 사업계획서 신청 지도
 - * 클린사업장 참여 학습기업 : ('20) 68개소 → ('23) 약 200개소
 - * 산재예방시설 용자 학습기업 : ('20) 85개소 → ('23) 약 200개소
- 위험성 평가 인정기업은 학습기업 지정 및 우수기업 인증시 우대, 미인정 학습기업은 위험성 평가 컨설팅 및 인정신청시 지원(안전보건공단)
 - * 위험성 평가 인정 학습기업 : ('20) 227개소 → ('23) 약 500개소
- (정부·지자체 지원사업 연계)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지원사업* 및 자치단체의 청년·기업지원 사업과 연계,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 추진
 - * 청년내일채움공제, 정규직 전환세액 공제의 활용을 높이고, 청년추가고용장려금(청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시 인건비 지원)의 일학습병행과의 연계 추진

II

학습근로자 경력개발 및 미래인재 성장 기회 부여

- ❖ 학습근로자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기업 매칭을 강화, 중도탈락 방지 및 장기근속 여건 마련
- ❖ 학습근로자가 산업·기업내 핵심인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후학습체계 다양화 및 신산업·신기술 분야 훈련 확대

1 학습근로자와 학습기업간 매칭 강화

- (도제과정) 학생과 기업이 충분한 탐색을 통해 만족하는 채용이 되도록 '도제학교 준비과정'*(시범운영)을 Job Market으로 발전·확대

* 방학 중 학습기업 탐방·실습 후 면접을 거쳐 최종 채용, 일학습병행 참여

- (운영방식) 도제학교 ①학생 및 기업 정보* 先제공 ②多대多 면접 및 현장견학·체험 등을 통한 최종 채용 지원(Job Market 도입)

* (학생) 자기소개, 특기와 진로희망, (기업) 기업소개, 채용예정 직무, 근무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동영상 등으로 제작, 상호 제공

- (Job Market) 지역별·업종별·도제학교별 특성을 고려, Two-Track 방식 운영, 도제학교에 선택권 부여('21. 도입 → '23. 정착)

① (트랙1 : 사업단별) 도제학교 또는 사업단별 기존 협약기업과 신규 발굴기업이 참여하는 소규모의 Job Market 운영('21~)

② (트랙2 : 지역별) 지리적 연계가 가능한 지역내 기업과 도제학교가 참여하는 광역(시) 단위의 지역확산형 Job Market 운영('22~)

[도제학교 준비과정 운영(안)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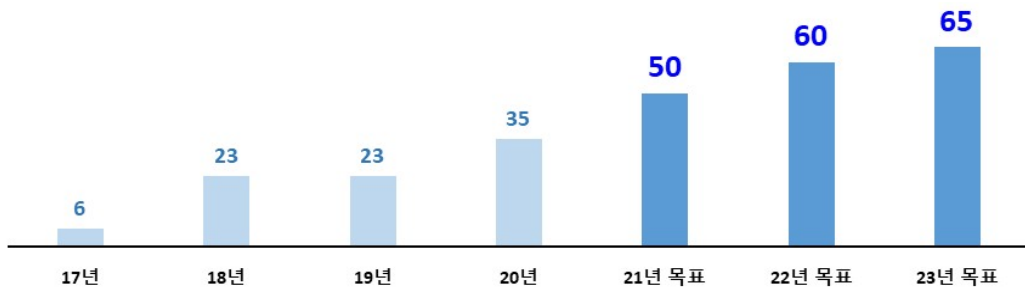
- (IPP과정) 현장실습기간 단축(4~6→2개월),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인 대학생이 곧바로 일학습병행에 참여토록 유도('20. 22개교 → '23. 36개교)

2 후학습 성장경로 구축

- (P-TECH 확대) 도제학교 졸업 후 전문대·폴리텍의 일학습병행에 재참여, 자격 및 전문학사를 취득하는 P-TECH* 확대('20. 35개교 → '23. 65개교)

* 융합형 고급 기술훈련 경로(Pathways in Technical Education, oriented Convergent High-Technology)

[연도별 P-TECH 참여학교 현황 및 목표 (누적)]



- (참여대상 확대) 현재 참여요건인 '도제학교 졸업생'을 특성화고 졸업생, 일반계고 졸업생, 고졸 재직자 단계 이수자까지 확대
 - * 참여대상자별로 「도제학교 졸업생 → 특성화고 졸업생 → 일반계고 졸업생 → 재직자 단계 이수자」 등 참여우선 순위 및 참여비율 설정
- (후학습경로 다양화) 근로자가 일학습병행을 통해 산업·기업내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 유형간 재참여를 허용
 - 외부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동일·유사 직무의 상위 NCS 및 학위 과정 재참여 허용(현재 도제학생의 P-TECH 재참여만 가능)
 - * (예시) ▲ '전기설계_L3' 이수 및 외부평가 합격 → '전기기기설계_L5' 자격과정 재참여
 - ▲ P-TECH 전문학사 과정 이수 및 외부평가 합격 → 4년제 학사과정 재참여
- (평생 경력개발기반 구축) NCS 은행제*를 통해 일학습병행 이력, 자격취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, 학습근로자의 경력설계에 활용 지원
 - * NCS능력단위 기반 모듈형 학습의 확산과 KQF를 바탕으로 교육훈련-자격-현장경력 등의 상호 연계·인정을 위한 'NCS 기반으로 축적된 개인별 경력(역량)관리 인프라'
- (학점은행제 연계) 일학습병행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

3 신산업 · 신기술 분야의 미래인재 성장 지원

- (디지털 기초역량 향상) 디지털 기초직무 역량교육을 일학습병행 과정에 포함·개발, 신산업과의 융합 촉진 한국형 뉴딜
 - 디지털융합훈련과 연관이 높은 정보통신, 전기·전자(NCS 대분류) 훈련과정부터 적용 → 이후 기계, 재료, 화학 등 적용 분야 확대
 - * (21) 전기·전자, 정보통신 분야 41개 직종 → (23) 기계·재료·화학 분야 82개 직종
- (도제학교 확대) 도제학생이 4차 산업혁명 유망직종으로의 진출을 위한 관련 분야 훈련과정 지속 확대 및 도제학교 추가 선정
 - * (20.9월) 7개교에서 4개의 신산업 분야(첨단자동차, IOT, SW, 스마트팩토리) 훈련 → (23) 11개 분야(드론, 바이오, 빅데이터, AI, 로봇, VR 등) 확대
 - 특성화고 재구조화 사업과 연계, 도제학교의 신산업 분야 학과개편을 지원하고 혁신훈련 프로그램과 접목, 신산업 실무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
 - * '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' 사업 : '20. 6개교 → '23. 40개교 → 도제참여 순학교

4 학습근로자 참여 동기부여 및 직장적응 지원

- (인센티브 제공)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 정부사업 및 자치단체 취업 연계 장려금 등을 발굴, 도제학생 지원 방안 강구
- (노무컨설팅) 도제학교 전담노무사를 상시 운영, 도제 학습기업(50인 이하) 및 도제학생에 대한 노무상담, 직장내 괴롭힘 등 고충상담 지원('21)
 - * 학습근로자의 접근성을 고려, 도제학교 사업단별·권역별 지정 운영
- (신속대응 협업체계 구축) 도제학교 담당교사와 청(지청) 산업안전 감독관과의 긴급연락 협업체계 구축,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('21~)
 - 산업안전 전문기관을 활용, 도제학교 전담 안전전문가(1개 사업단 1명)를 지정, 모니터링 및 산업안전 교육에 활용('21~)
- (실태조사) 일학습병행 실태조사를 통해 학습근로자의 고용안정·처우 개선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련

- ❖ 기업현장교사·공동훈련센터 등 참여주체간 소통 및 상호 역량 강화 추진
- ❖ 집체위주에서 집체-원격이 혼합된 비대면 원격훈련 활성화 지원

1 기업현장교사 역량강화

- (교육개편) 문제해결 기반학습(PBL) 등 새로운 교수기법·평가방법 등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 과정 운영 및 필수이수 유도
 - 교육참여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유급휴가훈련(5일 이상 유급 훈련시 인건비 등 비용지원) 완화 방안 검토
- (기업현장교사 등급제 도입) 기업현장교사 활동이력에 따른 역량 분류(1~3급)를 통한 등급별 적정 역할 부여 및 인센티브 지원
 - * 등급별 역할(안) : ▲3급 : 학습근로자 지도 등 당해 기업내 활동 → ▲2급 : 他기업 일학습병행 조연 등 지원 → ▲1급 : 제도개선 제안 등 공적영역 활동
- (PDMS 고도화) 기업현장교사의 원활한 교수활동 지원을 위한 PDMS (훈련과정 개발인정 시스템)를 학습지원 통합 플랫폼으로 확장
 - 학습 관련 DB를 축적, 교수과정 개발·교수기법 선택·내부평가 문제출제 등 교수활동에 도움되는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생성, 지원

2 공동훈련센터 등 지원기관 효율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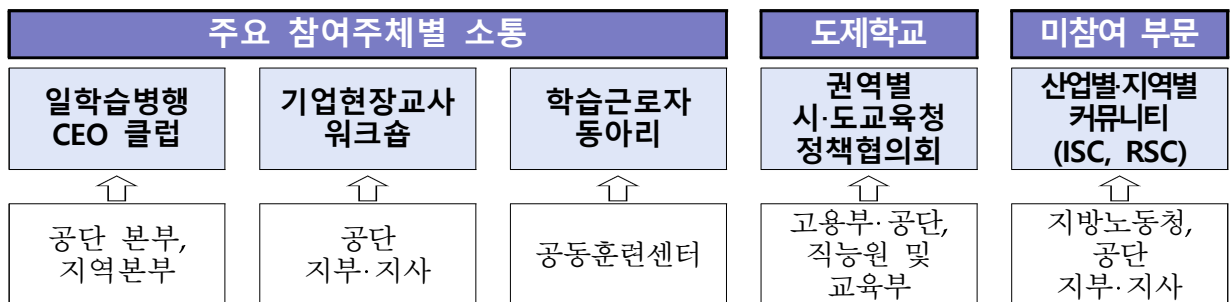
(1) 공동훈련센터 효율화 및 전문화

- (효율화) 1개의 기관이 사업유형별로 각각 지정받던 방식을 '기관별 통합사업단 지정' 방식으로 개선, 사업유형을 자율적으로 선택
 - (자율성) 기관 운영, 예산 집행 및 시설장비 사용 등에 대하여 칸막이를 해소하고 사업계획 심사시 자율성 부여
 - (성과강화) 훈련 실적 등 정량지표 중심에서 훈련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정책목표 중심으로 개선
 - * 훈련의 질 제고 활동(예시) : ① 내·외부평가 관련 기업현장교사 교수기법 지원, ② OJT과정과 OFF-JT과정 연계 강화, ③ 기업현장교사 애로사항 상담 및 개선 지원

- (전문화) 공동훈련센터별·지역별 훈련 직종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「전문성 특화 공동훈련센터」 지정·운영
 - * (예시) 안산지역(반월, 시화공단 소재)은 기계, 전기·전자 직종으로, 울산지역(온산, 미포공단 소재)은 조립, 용접 등 직종으로 특화
- 지역산업과 연계된 직종으로 전문화하고, 전문화된 직종은 일학습 병행의 다양한 유형(도제학교, P-TECH 등) 참여 유도
 - * 전문 훈련연종에 필요한 高사양의 시설·장비를 갖추 수 있도록 비용 우대 지원
 - * ('21) 전문 직종 개발 → ('23) 전체 공동훈련센터 중 50%에 대해 전문 직종 선정

[2] 사업참여 주체간 소통 활성화

- (일학습병행 CEO 클럽) 지역·산업 대표 기업의 사업주 중심으로 구성,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사업주 참여 분위기 조성
 - * 중소·대기업 상생모델 제시, 기업형 공동훈련센터 발굴 및 우수 학습기업 발굴 등 협의
- (기업현장교사, 근로자) 기업현장교사 워크숍, 학습근로자 동아리 등 네트워크를 구성, 우수사례 공유, 애로사항 해소, 역량강화 등 지원
 - * ▲(기업현장교사) 교수·상담기법, 내부평가 출제·평가진행, 외부평가 대비 학습근로자 지원 등 ▲(학습근로자) 평가문제, 시간관리 노하우 등 공유
- (정책협의회) 도제학교 관련 「권역별 시·도교육청 정책협의회」 구성, 정책추진 현황 공유, 제도개선 사항 및 훈련직종 확대 등 논의
 - * 기존 도제학교 교장단 정례협의회(분기별)와 병행하여 고용부·공단·직능원,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시·도교육청 정책협의회 운영(반기 1회)
- (산업·지역별 인적자원위원회) 산업·지역별 커뮤니티를 구성, 신기술·미래유망분야 과정개발, 제도개선 사항 및 지역 훈련수요 공유
 - * (현행) 고용센터, 교육청, 공단 지부·지사, 지원기관 참여 / 부정기적 개최 → (개선) ISC(산업별 인자위), RSC(지역인자위) 기관 참여 / 정기(분기별) 개최



3 비대면 원격훈련 기반 구축

- (훈련 온라인화) Off-JT 원격훈련*을 단계적 확대('21. 재학생 → '23. 재직자) 하고 직무별 시설·장비 활용 정도를 고려한 비대면 OJT 방안 마련
 - * 한국기술교육대(기계제어설계, 생산관리 등 7개 과정), 한양여대(호텔식음료 1개 과정)
 - * ('20~'21) 시범사업 → ('22~) 플립러닝, 동영상,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등 확산
- (훈련 콘텐츠) 플립러닝, AR·VR 등 실감형 콘텐츠, 기업현장교사 대상 원격훈련 교수법 등 비대면훈련을 위한 콘텐츠 확보
 - 특히, 절삭가공, 용접 등 현장훈련시 위험성이 높은 콘텐츠부터 단계적으로 AR·VR 활용 촉진
 - * ('19) 실감형 건설용 크레인(VR) 개발 완료(거제대-폴리텍 진주) → ('20) 사출 금형, 하드웨어 시험인증 → ('21) 매년 2개 직종 추가
- (원격교육 콘텐츠 공유) 온라인 플랫폼에 축적되는 다양한 비대면 훈련 콘텐츠를 他 훈련기관, 학습기업도 활용 가능토록 공유체계 구축
 - * 폴리텍, 한국기술교육대, 산업인력공단 보유 온라인 콘텐츠 공유, STEP과 연계

4 성과관리 지표 구축

- 현재 단기·양적지표 위주에서 일학습병행의 사회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장기 성과지표 개발 추진('21~)
- (現) 학습근로자 고용유지율·중도탈락률·외부평가 합격률 등 단기 성과 위주 지표 → (改善)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·청년 조기취업 및 핵심실무인력 양성 등 장기성과 지표

[장기 성과지표 개발 예시]

- △ 지역·산업인재 정착 지표 : 청년이 지역인재 또는 산업의 실무인재로서 입직 초기부터 양성되어 동종 지역, 업종·직종에서의 경력개발 추이 평가
- △ 개인경력개발 개선 지표 : 입직 초기부터 일학습병행과정을 통해 개발된 개인경력이 이후 더 나은 경력으로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, 숙련 수준, 임금 등 근로조건, 경력개발에 미친 영향 등 평가

IV

일학습병행 자격 통용성 확대 지원

- ❖ 일학습병행 자격의 산업현장 통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, 신기술 분야 자격 지속 발굴 추진(자격 취득 : '20. 18천명 → '23. 36천명)

1 일학습병행 자격의 산업현장 통용성 확보

- (국가기술자격과 연계) 일학습병행 자격취득자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자격요건으로 대우
- (시험 일부면제) 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NCS 필수능력 단위가 동일한 종목은 자격시험 상호간 시험 일부면제 추진
- (활용성 제고) 개별법령에서 자격소지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자격 취득을 의무화한 경우, 일학습병행자격도 포함되도록 관계부처 협의
* 소관 자격이 많은 부처(과기부, 국토부, 산업부)부터 단계적으로 협의 추진('21년~)

2 신기술 분야 자격 발굴

- (신규직종 발굴)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개발된 NCS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준의 훈련직종 개발('20. 12개 → '23. 24개)
* ▲('19) 3D 프린팅 소재개발, 스마트팜 계측, 인공지능 모델링, 블록체인 서비스 등 20개 직무 ▲('20) 인공지능서비스운영관리, 스마트물류체계 기획 등 10개 직무
- (자격개발·보완)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계 수요변화에 대응, 일학습병행 자격 개발·보완 위해 '일학습병행 자격개발 협의회(가칭)' 운영

3 평가체계 개편을 통한 자격 공신력 제고

- (문제은행 구축) 내부평가는 우수문제 구축(1만개)·PDMS에 게시, 외부평가도 자동출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문제풀 구성(~'23)
- (내부평가 가이드라인) 기업현장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직종별·수준별 내부평가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
- (외부평가 신뢰도 제고) 웹기반 출제정보시스템을 구축, 종목별 평가문제 표준화 후 일부 문제공개로 학습근로자 외부평가 준비 지원

IV. 기대효과

	As is	To be
I. 학습기업 참여 활성화 및 지원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양적 성장 및 제도기반 구축 중심 ○ 연도별 우수중견기업 참여 : 30% ○ 우수사례 기업 : 49개소 ○ 전통적 방식(출결관리 등)의 훈련 관리 ○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시범 사업 ○ 안전한 훈련환경 조성 : 380개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질적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 ○ 연도별 우수중견기업 참여 : 40% ○ Best-일학습병행기업 : 150개소 ○ 성과중심의 훈련관리 및 훈련관리의 편리성 도모 ○ 민간자율형 고도화 등 다양한 훈련 모델 개발·운영 ○ 안전한 훈련환경 조성 : 900개소
II. 학습근로자 경력개발 및 미래인재 성장 기회 부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단위 도제준비 과정(시범 4개교) ○ P-TECH 참여대학 : 35개교 ○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사업 : 6개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Job Market : 거점학교 중심 → 지역별 확산 ○ P-TECH 참여대학 : 65개교 ○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사업 : 40개교
III. 일학습병행 활성화 기반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업현장교사 : 양성교육 중심 ○ PDMS 구축·운영 ○ 공동훈련센터 참여유형별 지정운영 ○ 참여주체별 소통 미미 ○ 대면·집체교육 중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업현장교사 : 등급제 및 역할강화 ○ PDMS 고도화 : 자동 과정개발 등 인공지능 기능 구현 ○ 공동훈련센터 효율화 및 전문화 ○ 참여주체별 소통 활성화(커뮤니티) ○ 비대면 원격훈련 활성화 : 플립러닝, AR·VR, 원격훈련 Off-JT, 비대면 OJT 도입
IV. 일학습병행 자격 통용성 확대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학습병행 자격취득자 : 18천명 ○ 국가기술자격 미연계 ○ 신기술 분야 훈련직종 개발 : 12개 분야 ○ 내부·외부평가 시스템 부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학습병행 자격취득자 : 36천명 ○ 국가기술자격 연계 : 시험일부 면제, 현장활용 제고 ○ 신기술 분야 훈련직종 개발 : 24개 분야 ○ 내부평가 가이드라인 마련, 내부·외부평가 문제은행 구축

V. 추진일정

과 제	'21	'22	'23
1. 학습기업 참여 활성화 및 지원강화			
1. 우수 중소·중견기업 참여 확대			
① 우수기업 발굴			
②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			
2. 훈련관리 체계개편을 통한 기업참여 유인제고			
① 훈련체계 개편			
② 성과중심 OJT 확대·도입			
3. 기업수요 중심의 훈련모델 개발			
① 민간자율형 고도화 및 확산			
② 지역 산업 연계모델 신설			
③ 대·중소 상생모델 신설			
4. 학습기업 지원강화			
① 학습기업 혜택 확대			
② 기업환경 개선지원			
③ 정부·지자체 지원사업 연계강화			
2. 학습근로자 경력개발 및 미래인재 성장 기회 부여			
1. 학습근로자와 학습기업간 매칭 강화			
① 도제학교 준비과정 도입 <input type="checkbox"/> Job Market			
② IPP형 현장실습기간 단축			
2. 후학습 성장경로 구축			
① P-TECH 확대			
② 후학습경로 다양화			
③ 평생 경력개발기반 구축			
3. 신산업·신기술 분야의 미래인재 성장 지원			
① 디지털 기초직무 역량교육 도입			
② 도제학교 신산업 분야 확대 및 도제학교 추가선정			
③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			
4. 학습근로자 참여 동기부여 및 직장적용 지원			
① 인센티브 제공			
② 노무컨설팅 지원			
③ 신속대응 협업체계 구축			

과 제	'21	'22	'23
3. 일학습병행 활성화 기반 구축			
1. 기업현장교사 역량 강화			
① 기업현장교사 교육과정 개편			
② 기업현장교사 등급제 도입			
③ 학습지원 플랫폼(PDMS) 운영			
2. 공동훈련센터 등 지원기관 효율화			
2-1 공동훈련센터 효율화 및 전문화			
① 공동훈련센터 효율화 (통합지정)			
② 공동훈련센터 자율성			
③ 공동훈련센터 성과강화			
③ 전문성 특화 공동훈련센터			
2-2 사업참여 주체간 소통 활성화			
① 일학습병행 CEO 클럽			
② 기업현장교사, 근로자 네트워크 구성·운영			
③ 정책협의회 구성·운영			
④ 산업별·지역별 커뮤니티 구성·운영			
3. 비대면 원격훈련 기반 구축			
① 훈련의 온라인화			
② 훈련 콘텐츠 개발			
③ 원격교육 콘텐츠 공유			
4. 성과관리 지표 구축			
① 장기 성과지표 개발			
4. 일학습병행 자격 통용성 확대 지원			
1. 일학습병행 자격의 산업현장 통용성 확보			
① 시험일부 면제			
② 일학습병행 자격활용성 제고			
2. 신기술 분야 자격 발굴			
① 신규직종 발굴			
② 일학습병행 자격 개발·보완			
3. 내부·외부평가 체계강화를 통한 공신력 제고			
① 문제은행 구축			
② 내부평가 가이드라인			
③ 외부평가 신뢰도 제고			